

정부, 반도체 R&D 근로시간 규제개선 의지 밝혀

-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
- 근로자 건강과 반도체 경쟁력 고려한 정부 차원의 조치 조속히 마련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판교에 있는 동진썬미켄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 (동진썬미켄,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한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일본·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 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간담회 개요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진선 (044-202-7991)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김지은 (044-202-7982) 이혜민 (044-202-7541)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담당자	서기관	문경준 (044-203-4272)



참고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개요

□ 목 적

-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필요 관련 의견 수렴

□ 일 시

- '25. 3. 11일 (화), 11:30 ~ 12:30

□ 장 소

- 동진썬미켄 R&D 센터 (판교)

□ 참석자

- 정부 : 산업부·고용부 장관
- 기업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썬미켄, 주성, PSK, 솔브레인, 원익IPS,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등
- 경제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회, 중소기업중앙회, 반도체산업협회

□ 행사 주요 내용 ※ 인사 말씀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1:30 ~ 11:35	■ 인사 말씀	산업부·고용부 장관
11:35 ~ 12:25	■ 현장 간담회	참석자 전원
12:25 ~ 12:30	■ 마무리 말씀	산업부·고용부 장관